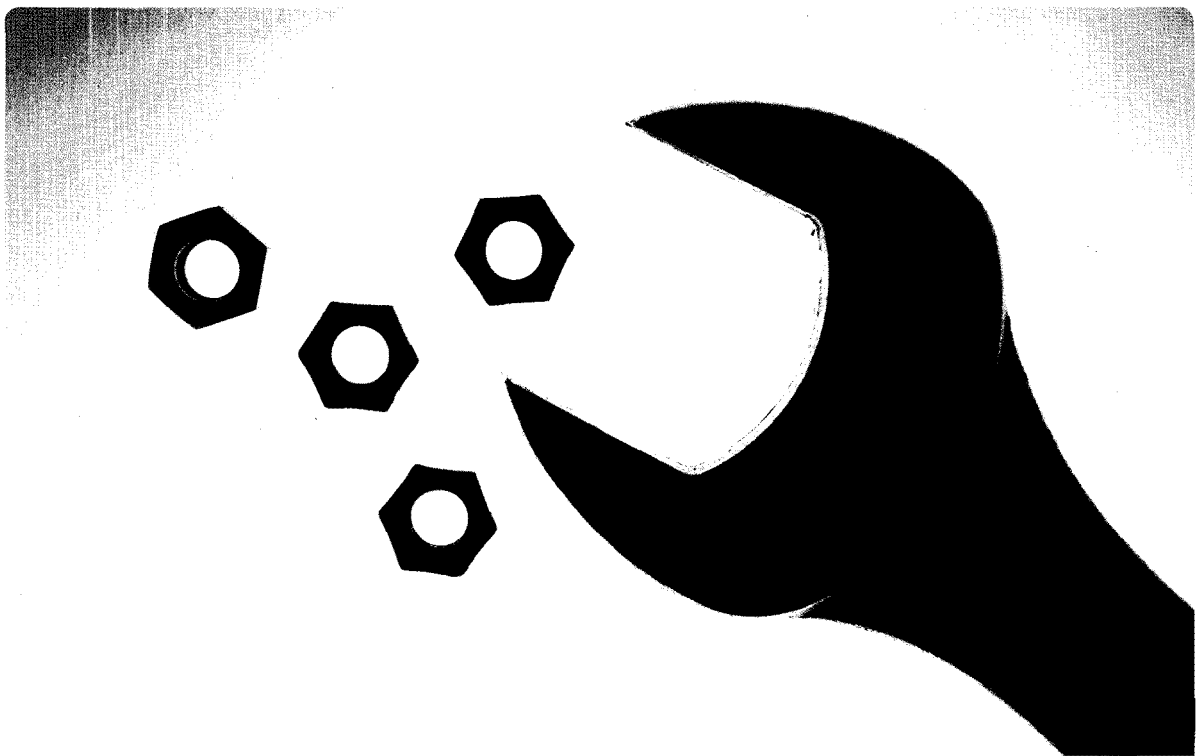


인적자원에서부터 아웃소싱까지

ISO, 5개 분야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해 업무 확대

“ISO가 5개 분야 신규 기술위원회를 설립해 업무를 확대했다. 5개 분야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경영과 아웃소싱, 인적자원관리, 적층 제조, 위기관리이다. <편집자>”



▲ 나사의 크기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 1만 8,600여 종 국제표준이 개발되었지만, 최근 ISO의 업무 분야는 확대·다각화 되고 있다. 신규 5개 분야는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경영, 아웃소싱, 인적자원관리,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위기관리이다.

나사의 크기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 1만8,600여 종 국제표준이 개발되었지만, 최근 ISO의 업무 분야는 확대·다각화 되고 있다. 신규 5개 분야는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경영, 아웃소싱, 인적자원관리,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위기관리이다.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경영

ISO/TC 258,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경영은 ISO/PC 236이 현재 개발 중인 표준(ISO 21500)에 포함되지 않고 많은 국가에서 필수적이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2011년 6월 27~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간사국과 의장국은 미국 ANSI와 영국 BSI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에 대한 기존 문서의 복잡성과 공통의 용어가 없는 점을 들어, ISO는 ISO/PC 259 아웃소싱이라는 신규 프로젝트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2011년 6월 16~17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사국과 의장국은 네덜란드 NEN과 영국 BSI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

점점 많은 조직이 국경을 초월하고, 노동력은 점차 이동적이고 글로벌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원관리를 통일하는 것은 효율성 보장에 필수적이다.

신규 ISO 위원회 ISO/TC 260 인적자원관리는 지침서, 프로세스, 정책, 관행, 서비스 등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25개국이 현재 참여중이며 위원회의 간사국은 미국 ANSI가 담당하고 있다.

적층 제조

적층 제조는 제품개발과정의 고유한 부분이다. 이러한 적층은 제조원형, 도구, 생산부품에 사용된다.

새로운 ISO 기술위원회인 ISO/TC 261, 적층제조는 산업계의 개발과 시장 진입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할 것이다. 첫 회의는 독일 베를린에서 2011년 7월 26~27일 개최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국은 독일 DIN이 담당하고 있으며,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기관리

세계를 경악시킨 자연재해를 겪은 이후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줄 도구를 찾고 있다. 2009년 종합적인 위기관리 툴박스가 ISO 작업반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ISO는 새로운 PC ISO/PC 262, 위기 관리를 신설하여 이러한 표준의 이행에 지침을 제공해줄 문서를 개발할 업무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위기관리 구조와 프로세스 이행/위기관리 전략/위기관리문화 개발/확인된 위험의 처리와 관리/
지배구조/위기관리에 대한 조직성과의 개선/조직의 기회 최대화와 손실 최소화

이러한 문서들은 적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한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간사국과 의장국은 BSI와 SA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첫 회의가 2011년 9월 12~16일 개최될 예정이다.

